中 전기차, 더 어려워진 내수로 해외 진출 경쟁 심화 예상

Hana China Weekly | 2026.2.6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전기차: 1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 구매세 축소 및 계절적 요인으로 위축

- BYD는 21.0만대(YoY -29.1%, MoM -49.4%)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해외 전기차 수출은 10.1만대(YoY +51.5%, MoM -24.5%)로 중국 내 전기차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임. 지리자동차, 립모터 등 경쟁 업체가 저가형 모델을 강화하면서 BYD의 시장 점유율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테슬라 1월 판매량은 6.9만대(YoY +9.3%, MoM -28.9%)를 기록. 1월 판매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테슬라는 1월 6일 중국 시장 최초로 최대 7년 만기의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을 출시했으며 1월 26일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Model 3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8,000위안(약 1,150달러)의 보험 보조금을 다시 제공하기 시작.
- 샤오펑은 2.0만대(YoY -34.1%, MoM -46.6%)를 기록. 1/8 샤오펑은 4가지 모델을 업데이트했으며 2026년형 X9의 예약 주문을 시작함. 1/22부터 7년 저금리 금융 플랜을 시작하였음. 2026년 7개의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소비층을 타켓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
-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발표한 1월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2 전기차 섹터는 약세(- 2.5%)를 기록.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구매세가 전액 면제됐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감면율이 50%로 축소되며 최대 감면 금액 역시 3만 위안에서 1만5,000위안으로 감소. 이러한 세제 혜택 축소가 소비자 구매 부담을 높이며 전기차 업계 전반의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캠브리콘(688256.SH): 첫 연간 흑자 달성 전망

- 1/30 캠브리콘은 2025년 잠정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60억~70억위안(중간값 기준 YoY +453%)으로 늘고 순손실 또한 2024년 3.7억위안에서 2025년 18억5000만~21억5000만위안으로 흑자 전환될 것이라 밝힘. 이는 캠브리콘 창사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으로 중국 AI 반도체 산업이 적자 국면에서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장기화 속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 정책 강화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목됨. 특히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사업자를 중심으로 컴퓨팅 파워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산 AI 가속기 채택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엔비디아 및 AMD 칩 수급 불확실성으로 중국 빅테크들이 국산 AI 칩을 확대 채택하면서 캠브리콘이 반사이익을 얻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

플랫폼/테크

플랫폼: 세율 인상 루머로 약세

- 2/4 중국 매체에 따르면 텐센트, 콰이쇼우 등 플랫폼 핵심 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기존 6%에서 9%로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짐. 이는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체 범위에 관한 공고'에 대한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당국의 부인에 현재 루머는 일단락된 상태.
- 루머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상 우려가 확산되며 플랫폼 기업 주가는 단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임. 텐센트(0700.HK), 콰이쇼우(1024.HK), 바이두(9888.HK) 등 주요 종목은 2/4 각각 4.0%, 4.6%, 3.6% 하락 마감.

바이두(9888.HK): 5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진행 예정

- 바이두는 2/4 약 5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발표. 해당 프로그램은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 또한 바이두는 2026년 사상 첫 배당금 지급 계획을 공개.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됨.

알리바바(9988.HK): Qwen 사용자 확보 위한 30억위안 보조금 지급

- 2/2 알리바바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자사 AI 챗봇 앱 Qwen의 사용자 확보를 위해 30억위안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 이는 경쟁사인 텐센트와 바이두가 각각 10억위안과 5억위안을 투자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중국 내 AI 시장의 경쟁 심화를 반영. B2C향 AI 경쟁 심화 우려에 2/2 알리바바 주가는 3.5% 하락 마감.

텐센트(0700.HK): 위챗, AI 챗봇 Yuanbao의 '럭키 현금 수령' 링크 공유 제한

- 2/4 텐센트는 위챗이 사용자 불만 및 경험 저해 이슈를 이유로 AI 챗봇 Yuanbao의 '럭키 현금 수령' 링크 공유 기능을 제한했다고 발표. 핵심 트래픽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내부 마찰이 발생하며 약 1.4억달러 규모 사용자 확보 캠페인에 차질 우려가 부각. 2/4 텐센트 주가는 4.0% 하락 마감.
- 위챗이 Yuanbao의 현금 포인트 이벤트 관련 링크가 단톡방에서 과도하게 공유되어 링크 오픈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되며 2/5 Yuanbao측은 현재 공유 메커니즘을 긴급 조정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것이라고 대응.

로봇: 휴머노이드 H/W에서 S/W까지 투자 확대 중

- 2/3 SCMP에 따르면 선전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림엑스 다이나믹스는 약 14억위안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이번 투자에는 JD.com 및 국영 펀드 허페이혁신투자 등이 참여함. 연초 이후 이어진 투자 확대는 빅테크와 국영 자금이 기존 하드웨어 중심 투자에서 소프트웨어인 '로봇 두뇌' 영역으로 관심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SCMP는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역량에 집중하는 신규 기업군이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 중국은 연초 이후 로봇 산업에서 총 85건, 33억위안 이상의 투자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 이 가운데 73%가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집중됐으며, 선전 소재 기업이 전체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애지봇(비상장): 세계 최초 로봇 갈라쇼 진행

- 2/3 애지봇은 8일 오후 8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형 로봇 공연 행사 '로봇의 신기한 밤'을 개최할 예정. 이번 행사는 갈라쇼 전 과정을 로봇이 주도하는 것이 특징으로 약 200여 대의 로봇이 무대에 올라 노래, 춤 등을 선보일 계획. 사람 출연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공연은 세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함.

로봇: 제 15 5개년 1호 문건에 드론과 로봇 언급

- 2/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26년 1호 문건으로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및 농촌 전면 진흥에 관한 의견>을 발표.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주목받음. 중국 현지 매체 신화통신은 이번 문건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들어 처음 발표된 1호 문건이며, 드론과 로봇이 포함된 것도 최초 사례라고 전함. '1호 문건'은 매년 중국 당정이 공동 발표하는 최우선 정책 방향을 담은 문서로, 해당 연도의 핵심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됨.

반도체/전력

반도체: 미 정부와 엔비디아 간 이견으로 대중 AI 칩 판매 승인

- 2/4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엔비디아의 AI 칩 판매를 승인할 뜻을 밝혔으나 엔비디아가 세부 조건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승인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 미 상무부는 약 2주 전 바이트댄스에 대한 H200 수출 허가를 승인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엔비디아가 현재 고객확인제도(KYC) 등 관련 세부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엔비디아는 바이트댄스뿐 아니라 다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H200 칩을 공급 관련 허가 조건을 미국 정부와 논의 중.
-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 대변인은 성명에서 "KYC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쟁점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칩을) 판매하려면 조건이 상업적으로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산 대안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강조.

캠브리콘(688256.SH): 첫 연간 흑자 달성 전망

- 1/30 캠브리콘은 2025년 잠정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60억~70억위안(중간값 기준 YoY +453%)으로 늘고 순손실 또한 2024년 3.7억위안에서 2025년 18억5000만~21억5000만위안으로 흑자 전환될 것이라 밝힘. 이는 캠브리콘 창사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으로 중국 AI 반도체 산업이 적자 국면에서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장기화 속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 정책 강화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목됨. 특히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사업자를 중심으로 컴퓨팅 파워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산 AI 가속기 채택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엔비디아 및 AMD 칩 수급 불확실성으로 중국 빅테크들이 국산 AI 칩을 확대 채택하면서 캠브리콘이 반사이익을 얻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
- 2/3 캠브리콘이 소규모 투자자 콜에서 26년 매출액 가이던스를 200억위안(컨센서스 300억~500억위안)으로 제시했다는 루머가 확산. 이에 대해 캠브리콘은 분기/연간 매출액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가 없다고 밝히며 공식 부인했으나 투심 위축이 이어지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모습. 캠브리콘은 이틀(2/3~2/4) 연속 주가가 하락하며 2영업일간 14.5% 하락.

SMIC(0981.HK): 첨단 패키징 연구소 설립으로 장비 반입 제한 우회 시도

- 2/2 디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SMIC는 최근 상하이 본사에 '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 업계에서는 SMIC의 이러한 행보를 미국의 첨단 장비 반입 제한을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미세 공정 고도화가 제약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공정에서 만든 칩을 하나로 묶는 '이종 집적'과 '3D 칩 적층' 기술은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기 때문.

태양광: 머스크 대표단 중국 태양광 업체 방문으로 강세

- 중국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 하나인 Jinko Solar(688223.SH)는 머스크 대표단이 방문했으나 공식 협력이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힘. GCL그룹(3800.HK) 또한 머스크 대표단이 자사의 과립 실리콘 기술과 미국 내 페로브스카이트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함. Tcl Zhonghuan(002129.SZ) 등도 방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주가는 급등. 2/4 Jinko Solar, GCL그룹, TCL Zhonghuan은 각각 20.0%, 2.8%. 9.9% 상승 마감.

변압기: 연초 이후 풀가동 상태 지속

- 2/1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및 광동성 등 일부 지역의 다수 변압기 공장이 이미 풀가동 상태에 있으며 데이터센터용 주문은 2027년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 올해가 시작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문이 전년 대비 70~80% 증가했으며, 생산라인 역시 연초 첫날부터 이미 풀가동 상태라고 밝힘.

전력: 중국 향후 5년간 3.4TW 이상의 발전 설비 확보 전망

- 블룸버그는 2/4 중국이 향후 5년간 3.4TW 이상의 발전 설비 용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이는 미국 신규 발전 설비 용량 규모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 급증에도 전력 공급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 중국은 2021년 이후 발전 설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발전 설비는 543GW를 기록했음.
- 전력 수요 구조에서도 미중 간 격차가 확대될 전망. 블룸버그는 미국은 빅테크 중심의 AI 투자 확대에 따라 대형 데이터센터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며 2024~2030년 전력 수요 증가분 가운데 38%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 반면 중국은 제조업 등 전통 산업 비중이 높은 데다 데이터센터 분산 배치 정책과 효율성 개선 추진 영향으로 해당 비중이 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대규모 발전 설비 확충과 맞물려 전력 수급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

전기차

중국 1월 전기차 판매 동향

- BYD는 21.0만대(YoY -29.1%, MoM -49.4%)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해외 전기차 수출은 10.1만대(YoY +51.5%, MoM -24.5%)로 중국 내 전기차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임. 지리자동차, 립모터 등 경쟁 업체가 저가형 모델을 강화하면서 BYD의 시장 점유율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지리자동차는 12.4만대(YoY +2.6%, MoM -19.5%)로 견고한 수출과 PHEV 모델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판매량이 증가. BEV 판매는 전년대비 15.0% 감소한 반면, PHEV는 36.9% 증가하여 제품 믹스의 변화가 나타남.
- 테슬라 1월 판매량은 6.9만대(YoY +9.3%, MoM -28.9%)를 기록. 1월 판매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테슬라는 1월 6일 중국 시장 최초로 최대 7년 만기의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을 출시했으며 1월 26일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Model 3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8,000위안(약 1,150달러)의 보험 보조금을 다시 제공하기 시작.
- 샤오펑은 2.0만대(YoY -34.1%, MoM -46.6%)를 기록. 1/8 샤오펑은 4가지 모델을 업데이트했으며 2026년형 X9의 예약 주문을 시작함. 1/22부터 7년 저금리 금융 플랜을 시작하였음. 2026년 7개의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소비층을 타켓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
- LEAP Motor는 3.2만 대(YoY +27.4%, MoM -46.9%)를 인도. 12월 연말 집중된 수요로 1월 판매량이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판단. 립모터는 향후 10년 내에 연간 400만 대의 차량 판매를 달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전기차 제조업체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샤오미는 3.9만대(YoY +95.0%, MoM +22.3%)로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기존 SU7 세단 주문이 1월 초 중단되고 1월 7일부터 신형 SU7 사전 주문이 시작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가 발생하며 구매가 일부 이연된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1월 판매는 대부분 YU7 SUV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SU7 세단의 기여도는 제한적이었음.
- 리오토는 2.8만대(YoY -7.5%, MoM -37.5%)로 판매량 둔화가 지속. 리오토의 i 시리즈 BEV는 출시 초기 생산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i6 모델은 핵심 부품 생산 지연으로 인해 일부 고객에게 인도 지연이 발생. 이로 인해 출시 몇달이 지났음에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리오토는 1/29 일부 Li i6 주문 고객에게 핵심 부품 생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차량 인도가 지연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음.
- 니오는 2.7만대(YoY +96.1%, MoM -43.5%)를 기록. 니오는 ES8 3세대 모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으나, 연말 판매 피크에 따른 역기저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월대비 감소. 다만 신차 효과가 본격 반영되며 제품 사이클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판단.
-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발표한 1월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2 전기차 섹터는 약세(- 2.5%)를 기록.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구매세가 전액 면제됐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감면율이 50%로 축소되며 최대 감면 금액 역시 3만 위안에서 1만5,000위안으로 감소. 이러한 세제 혜택 축소가 소비자 구매 부담을 높이며 전기차 업계 전반의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샤오펑(9866.HK): P7+ 세단 글로벌 대상 대규모 출하 본격화

- 샤오펑이 지난달 출시한 업데이트 모델 P7+ 세단의 해외 시장 대규모 출하를 시작. 웨이보를 통해 2026년형 P7+의 글로벌 출하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힘. P7+는 최초로 2024년 11월 7일 중국에서 순수 전기차(BEV) 버전만으로 출시됐으며, 2026년 1월 8일 업데이트 모델이 중국에 공개되면서 EREV(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 옵션이 추가되었음. 이어 1월 9일 유럽 시장에도 출시됐으며, 해당 모델은 36개 국가 및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

CATL(3750.HK): 승용차에도 나트륨이온 배터리 적용 시작

- 1/30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CATL이 상용차에 이어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승용차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도. 창안자동차(000625.SZ) 산하 Oshan 모델에 탑재됐으며, 테스트가 곧 시작될 예정. CATL은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영하 30°C의 극한 환경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영하 40°C에서도 사용 가능한 용량의 90%를 유지한다고 설명.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5E	2026E	2025E	2026E			
텐센트(0700.HK)	(7.8)	19.1	20.8	13.8	10.7	15.3	13.4	39.5	(0.3)	2026-03-18
알리바바(BABA.US)	(7.0)	29.3	9.9	3.9	10.3	(13.7)	16.7	(35.6)	(0.1)	2026-02-20
징동(JD.US)	(4.1)	11.8	9.8	13.0	5.3	(45.4)	14.9	(42.2)	0.2	2026-03-06
트립닷컴(9961.HK)	(6.1)	9.7	18.6	16.1	13.8	86.7	(40.9)	83.4	(1.3)	2026-02-24
텐센트뮤직(TME.US)	(5.1)	17.5	14.1	15.1	12.7	66.2	(10.4)	46.5	0.5	2026-03-18
콰이쇼우(1024.HK)	(8.9)	15.1	24.9	12.0	9.4	18.1	15.8	45.9	(0.1)	2026-03-2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4.9	11.3	17.3	8.4	5.4	12.9	9.9	12.8	(0.3)	2026-03-27
샤오미(1810.HK)	(1.6)	19.6	18.7	28.5	19.5	82.9	0.7	78.4	0.0	2026-03-18
레노버(0992.HK)	4.8	9.0	24.6	13.5	7.6	16.9	9.5	8.2	0.0	2026-02-12
팝마트(9992.HK)	8.4	21.2	71.5	186.8	34.3	299.8	36.2	294.9	(0.3)	2026-03-26
미니소(MNSO.US)	3.1	17.1	21.8	25.0	19.4	(18.1)	46.0	291.2	0.0	2026-03-20
BYD(1211.HK)	(6.6)	22.4	17.2	7.8	15.8	(10.8)	32.9	(14.9)	(0.7)	2026-03-24
샤오펑(9868.HK)	(6.1)	-	(4.7)	92.1	42.4	적지	흑자	적지	(0.1)	2026-03-18
CATL(300750.CH)	3.7	22.8	23.3	16.7	25.0	35.7	25.7	35.0	(0.2)	2026-03-16
양광전력(300274.CH)	(3.3)	22.5	32.8	24.4	21.0	41.7	20.6	40.4	2.7	2026-04-24
북방화창(002371.CH)	(1.1)	50.9	19.4	31.6	27.0	24.8	35.3	25.3	(0.4)	2026-04-27
SMIC(0981.HK)	(10.5)	115.1	3.3	15.5	20.5	43.4	48.6	63.5	0.0	2026-02-11
해광정보(688041.CH)	(9.9)	200.7	13.8	58.9	52.0	69.9	54.7	63.5	0.0	2026-04-07
통푸마이크로(002156.CH)	(8.3)	64.4	8.3	15.2	15.6	80.8	28.0	99.3	0.0	2026-04-16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6.6)	34.2	20.4	50.7	69.5	50.8	78.5	46.7	0.0	2026-03-10
중지쉬창(300308.CH)	(13.4)	61.4	40.8	57.6	96.9	108.6	116.9	102.3	0.0	2026-03-30
포니AI(PONY.US)	(5.8)	-	(21.8)	16.0	35.7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3-25
위라이드(WRD.US)	(8.1)	-	(19.0)	67.1	98.5	적지	적지	적자	-	2026-03-13
허사이테크(HSAI.US)	(0.9)	70.7	7.1	52.0	44.7	흑자	58.3	흑자	3.5	2026-03-10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0.2	-	(47.0)	50.3	67.4	적자	적지	적자	0.6	2026-03-23
킹소프트(688111.CH)	(8.1)	87.2	15.1	17.3	19.3	15.2	22.3	17.3	0.3	2026-03-25
중신증권(6030.HK)	0.4	12.6	10.2	(14.5)	8.2	35.7	12.6	43.1	0.0	2026-03-26
평균	(3.8)	41.1	13.7	33.1	29.9	46.2	28.1	61.1	0.1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2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2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